

늪어가는 '아파트 도시' 광주가 불안하다

거주 비율 63%... 전국 최고
30년 이상 아파트 124단지
균열·옹벽 붕괴 사고 잇따라

광주 도심이 노후되면서 아파트 균열, 옹벽 붕괴 등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데다 20년 이상된 아파트 거주민도 9만여 세대에 이른다. 아파트 타지역보다 더욱 촘촘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난 등을 이유로 안전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어서 시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시 남구 봉선동 대화 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사고도 안전소홀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는 972단지, 36만48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광주에서 총 57만4071세대가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거주비율은 62.79%이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광주의 아파트 노후화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불안한 회색 시멘트 도시'인 셈이다.

실제 광주에는 1980년대를 전후해 지어진 30년 이상된 아파트만 124단지에 달하고, 1만4735세대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20~29년된 아파트도 209단지 7만4664가구나 된다.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총 거주세대는 8만9399세대로, 아파트 거주민 4명중 1명꼴인 25%가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 건물은 청·장년기인 20년을 지나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민 중 상당수가 대형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질보다는 양이 우선되고, 안전보다는 '빨리빨리' 속도전이 당연시됐던 1980대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 중 일부는 최근 붕괴한 남구 대화아파트 옹벽처럼 부실하게 시공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회사들이 수익률에만 집착한 나머지 산자락이나 천변 등 아파트 부지를 부적합한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건축한 경우도 상당수여서 대형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민안전처의 2014년 지역 안전진단에서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구의 안전도는 최악인 '마들급'을 받았다.

이처럼 각종 자료는 물론 광주 도심 곳곳에서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광주시는 무사안일한 행정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책마련은커녕 아파트 외에는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연령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안전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기능도 사실상 정지돼 있다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루빨리 안전 전문가들로 점검팀을 꾸려 1단계로 육안조사에 나서고 2단계로 건축물 안전등급 재조정, 3단계로 서울시와 포항제철 등 일부 대기업에서 활용한 '3D 레이저스캐너(수개월 단위로 연속 촬영해 건물 및 산비탈 등 사고 우려지역의 미세한 변화를 비교분석) 기술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 시멘트의 강도가 50년 버티고 돼 있지만 1980년대 무렵에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은 기술력 부족으로 20년이 지나면 급격한 노후현상이 나타난다"며 "지진 등 자연재해도 빈번한 만큼 예방적 안전대책만이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국회의원 8석 지키기

새정치 광주시당, 광주시에 구간 경계조정 요청... 정부 승인까지 '첩첩산중'

'선거구 개편'이 올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최근 광주시에 생활권별 구간 경계 조정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최근 광주 광역시장 앞으로 생활권별 구간 경계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동구와 남구, 북구 등 생활권별 구계 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생활권별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

거구 2대1 인구편차 조정과 관련, 광주시당이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현재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구간 경계조정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동구 선거구만 '발등의 불'일 뿐 나머지 선거구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등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들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지역민들의 동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광주시가 정치권과 협의

해 구간 경계조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승인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현재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전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수는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광주보다 2명 적은 6명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정부가 쉽게 승인을 해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간 경계조정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아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미래를 밝히는 빛 광주 U대회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UN스포츠사무국과 함께 마련한 '에픽스(EPICS) 포럼 2015'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스포츠 미래를 밝히다'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이이남 작가와 Dot-mill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 2.16 ~ 22(월)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원서접수 > 2.9 ~ 23(월) 062)605-1115

변호사 2만 명... 생존 전략 > 6면

3·1마라톤 우리가 된다
광주·전남 달리는 의사들 > 21면

'이완구 늪' 정국 '흔미'

여야 '청문보고서' 충돌 예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 12일 국회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이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면>

문재인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후보 낙마가) 세 번째라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반대는 정해진 것 같고, 어떻게 (표현) 할지 방식만 남은 것 같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인준 반대 당론이 확정되면 이행 방법으로 ▲반대투표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 연기 제안 등 세 가지를 검토 중이다. 그 전 단계로 청문특위 차원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반대 혹은 부적격 의견제출, 특히 불참 등의 카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설 연휴 이후로 인준 표결을 연기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여당으로서의 설 연휴 이후로 인준이 늦춰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설 연휴 동안 민심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취임 이후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 일정을 미뤄놓았다는 점에서도 12일 이후로 인준을 미루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를 고수한다면 이날 또는 12일 오전 청문결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을 강행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12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대로 표결 처리하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WANGJU BANK

광주은행 전산센터 광주 이전에 따른 작업으로

2015. 2. 18.(수) 오후 10시 ~ 2. 20.(금) 오전 11시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중단기간 동안 사용할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을 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중단 업무 - 금융거래 전체

자동화기기(CD/ATM) /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 다른 금융 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거래

이용가능업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단, 체크카드는 2월 18일 22시~24시, 2월 20일 9시~11시 사용불가) / 고객센터를 통한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 접수
* 중단되는 서비스 및 중단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

ⓘ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062-239-5000, 1600-4000, 1588-3388